

## 김별아의 문학과 삶



## 이 겨울을 지나는 법

추위가 매섭다. 연일 최저기온을 경신하는 일기예보를 듣노라니 중국 선가(禪家)의 일화가 떠오른다. 하안거를 하던 수행승 하나가 혹독한 더위를 견디지 못해 조산(曹山) 거사에게 물었다.

“아무리 여름 시절이라지만 너무 덥습니다. 이런 때에는 어디에서 더위를 피하면 좋겠습니까?”

그러자 조산이 태무심한 얼굴로 대답했다.

“뭘 물어 끊는 큰 무쇠 속에서 이 글이 물 속에 타고 있는 화로 가운데로 가라!”

수행승이 이 엉뚱한 대답을 듣고 놀라 월찍 뛰어 조산이 간단명료하게 그 까닭을 설명했다.

“더위로 인해 겪는 어떤 괴로움도 그곳에서는 이르지 못하지 않겠는가?”

그런가하면 조산의 스승 동산(洞山) 선사는 더위와 추위가 닥쳤을 때 어떻게 그 짓을 피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더울 때는 그대 자신이 철저하게 더운 것이 되어 버리고, 추울 때는 그대 자신이 철저하게 추운 것이 되어 버리라!”고 답했다.

간추리자면 더우면 죽고 추우면 얼어 죽으라는 말씀이다. 세대로 견뎌보기도 전에 못 견디겠다고 엄부력을 멀려, 진짜

짜죽을 지경이 아님에도 더위 죽겠다고 짜증을 낸다. 정말 얼어 죽을 생각은 없으면서 추위 죽겠다고 불평을 한다. 행동보다 말을 앞세우고, 짜증과 불평으로 더위와 추위를 더한다.

이 같은 깨닭에 이해로운 조상들은 이 열차열(以熱治熱)과 이한치한(以寒治寒)의 이치를 가르쳤다. 더위를 더위로 이기고 추위를 추위로 이기는, 스스로 더위가 되어버리고 추위가 되어버리는, 종내는 그 뜻과 차가움의 경계가 깨끗이 사라지고 오로지 고요만이 남는 것이다.

뜨겁고 차가운 날은 살아가는 동안 시시때로 교차한다. 어떤 고통과 맞닥뜨렸을 때 사람마다 그것을 해결하려는 방식은 다양하다.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아 고통을 녹이려 들기도 하고, 술이나 오락 따위에 흡뻑 취해 허우적거리기도 하고, 색다른 일과 상황을 만들어 기분 전환을 꾀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힘들갑들은 대개 고통을 정면으로 마주하기 싫어 도망치고 회피하려는 시도에 가깝다. 괴롭고 두려워 외면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선사들의 공안과 조상의 지혜는 고통에 대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한가지임을 제시한다. 고통을 가장 빨리 치유하는 방법은 바로 그 고통

을 똑바로 바라보는 것이라는 진실!

대통령 선거가 끝났다. 큰 지진이 훌고 간 듯 뒷자리가 무참하다. 할 말이 없지 아니하나 군소리에 혀소리가 될 것 같아 말을 줄인다. 투표일 밤 나는 일찍 잤다. 어떤 꿈도 꾸지 않길 바리며 깊이 잤다. 그리하여 다음날 뜻밖으로 차분하게 깨어났다. 다만 친구가 전해온 빛고을과 남도의 조용한 아침 소식에, 잠시 아득해졌다.

지금 체우고 있는 이 시련을 얻은 연고로, 또한 결코 지울 수 없는 기억의 작용으로, 그곳은 내게 세상의 다른 어느 곳과도 다르다. 빛고을과 남도는 너무 일찍 철이 들어버린 애처롭게 처연하다. 진정으로 깊은 고통을 겪은 이들은 안다. 비명을 지를 수도 신음할 수도 없을 때, 남은 것은 투명한 침묵뿐임을.

기말고사가 끝난 아들아이와 함께 심야 영화 ‘페미리에볼’을 보았다. 원작의 단어가 50만자에 이르는 세계에서 가장 긴 소설 중의 하나인 대작을 어떻게 영화화했는지 궁금하기도 했고, 이즈음 상처입고 힘겨운 사람들이 보고 큰 감동을 얻었다는 입소문이 있어 마음먹고 나섰다.

방대하면서도 방만한 원서에서는 100 쪽이 넘어가도 장발장이 나오지 않고, 혁명파가 쓴 바리케이드와 파리의 하수구

를 묘사하고 설명하는 부분에서는 빅토르 위고를 존경하면서 육하게 된다) 원작을 압축하고 압축해도 러닝 타임은 2시간 40분 이상. 하지만 시간은 생각보다 빨리 흘렀다. 영화가 시작되고, 노래는 흐르고, 내 머릿 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났다.

어쩔 수 없었다. 나는 내가 아는 역사로 그들을 보았다. 깊은 혁명파들이 민중의 배신으로 죽어가는 장면은 고립된 그때의 빛고을을 연상시켰다. 마지막 일격이 벌어진 뒤 출지어 누운 시신은 80년 5월 27일의 도청을, 금발의 미청년 양풀라는 윤상원 열사를 떠올리게 했다.

1990년대 후반에 태어난 아들은 두어 번 ‘울컥’했다는데, 어느 장면이었는지는 물어보지 않았다. 아이는 ‘정상적인’ 교육을 하는 학교에서 근현대사를 열심히 배운 터였다.

아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 길, 꽁꽁 얼어붙은 겨울 하늘엔 별빛 한 점 없었다. 하지만 아이의 눈동자에서 빛나는 별을 길잡이 삼아, 비틀거리면서도 넘어지지 않고 걸음을 걸었다. 여전히, 추웠다. 하지만 추위조차도 웃으며 깨안으면 벌벌 떨지는 않아도 되리라. 스스로 추위가 되어 견디고 버티며, 이 겨울을 지나고 있다.

〈소설가〉

## 종 고 칼 림

## 화해와 화합을 통한 상생



김재영

탈북민에 나오는 예화이다. 어느 날 시시비리를 가려 달리며 두 짚은이가 랍비를 찾았으�다. 랍비는 각자 따로 불러 이야기를 들었다. 한 짚은이의 주장을 듣던 랍비가 말했다. “당신 말이 옳소.” 또 다른 남자의 주장을 듣고 난 후에도 랍비의 대답은 똑같았다.

“당신 말이 옳소.” 옆에 있던 랍비의 부인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따져 물었다. “아니, 두 사람이 다 옳다고 하면 당신의 판단은 뭐예요.” 랍비가 대답했다. “당신 말도 옳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 가정이나 작은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여러 문제는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하는 흑백의 문제라기보다 서로 다른 인정하면서 하나로 어울림을 만들어 가야 하는 문제가

많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잘못된 표현으로 가장 많이 지적되는 말이 ‘다르다’와 ‘틀리다’이다. 대부분의 문장에서 맞는 표현이 ‘다르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틀리다’라는 말을 많이 쏟아낸다. 틀린 것은 고쳐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모든 여지가 없어지게 된다.

그러나 다르다는 것은 비교할 수 있어 서로 좋은 점을 선택할 수도 있고 의견을 서로 조율할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다. 우리는 다른 것을 틀린 것처럼 오해하기 때문에 화해하지도 화합하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을 보게 된다.

이 시대에 좋은 영감을 주는 단어라 하면 ‘상생’(共生)이라는 말이다. 서로서로 공존하며 함께 잘 살아간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이 시대의 목표일 것이다. 한 곳을 향해 떠나게 되는 것이다.

왜 같등이 해결되지 못하는 걸까? 그것은 모두 다 가지려 하고 하나도 포기하지 않으려는 욕심 때문이다.

깊은 산 속 작은 연못에 물고기 두 마리

가 정답게 살았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두 물고기의 마음속엔 ‘나 혼자 이곳을 차지하면 왕이 되는데…’라는 생각이 들었다. 생각이 행동이 되고 다툼이 되어 물 사이의 평화는 깨어지기 시작했다. 사사건건 시비가 생기게 되었다. 다툼이 지속되면서 피차간에 미움이 증폭되어 갔다. 그러던 어느 날, 물은 생사를 걸고 싸움을 벌였다. 물고기하고 치고 박기를 계속하다 결국은 물고기 한 마리가 목숨을 잃게 되었다. 싸움에서 이긴 물고기는 “내가 이겼다. 내가 왕이다”라고 환호성을 질렀다.

그러나 이게 웬일까. 이긴 물고기로 결코 이긴 것이 아니었다. 성한 곳이 하나도 없었다. 싸우는 동안 물리고 끊긴 깊은 물에 삽시간에 심각했던 것이다.

상처는 좀처럼 아물지 않았다. 게다가 죽은 물고기는 물 위에 둉둥 뜯 죽어가고 있었다. 이에 따라 연못의 물도 함께 썩어갔다. 이렇게 되자 살아남은 물고기도 상처에 균이 감염되면서 병이 들게 되었다. 그리고 얼마 후 비참한 죽음을 당하고 말았다. 얼마 전까지 낙원이던 연못이 저

주의 현장으로 변하고 만 것이다. ‘너 죽거나 살겠다’는 생각이 만든 비극적인 이야기이다.

요즘 우리 사회를 바라보면 마치 이 ‘작은 연못’과 같은 세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대한민국이라는 작은 땅에 살면서 협력하지 못하고 있다. 정을 나누며 살아가는 이들마운 모습이 점점 사라져 가고 있다. 함께 살려고 하기보다 혼자 살려고 하다가 서로를 죽이고 만든 세상이 아닌가? 자기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느낌은 웬지 우리를 슬프게 한다.

인간관계에 있어 오해도 있을 수 있고 다툼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서로 경쟁하다 보면 서로의 결점은 이야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때뿐으로 끝났으면 한다.

지도자는 이 시대의 화해를 주도해 주어야 하는 막중한 책임도 있다. 모범적인 모습으로 조금씩 양보해 주는 미덕을 보여주었으면 한다. 화해를 이루는 것은 공평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조금 양보하고 이해해 주려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이제 화해의 차원을 넘어 화합을 이루어야 할 때다. 이것이 진정한 상생을 향한 첫 걸음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광주성안교회 담임목사〉

## 기고



윤병선

국립산림과학원이 2010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산림의 다원적 기능 가치를 평가한 결과 109조 67억원에 달했다고 발표했다. 이 수치는 농림업총생산액의 3.9%, 임업총생산액의 19.7%, 산림청 예산 1조 6000여 억원의 68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2년 전 같은 조사 때의 73조원보다 49%가 증가한 액수로 GDP의 9.3%에 달하고 국민 한 사람에게는 연간 216만원 정도의 산림복지 혜택이 돌아가는 셈이다.

## 산림, 미래 가치가 더욱 높다

산림의 공익기능 중 가장 큰 비중인 40%를 차지하는 분야로는 이산화탄소 흡수와 수원 기능이다. 예전에 비해 새롭게 추가된 신규기능으로는 산림경관(조망)이 15조 1708억원(14%), 산림생물다양성보전 5조 2753억원(5%), 산림치유 1조 6819억원(2%) 등 22조 1280억원으로 2008년 73조원에 비해 2년여만에 약 36조원이 증가했다.

숲의 공기는 언제나 맑고 신선하다. 왜냐하면 나무들은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다시 산소를 주는 산소를 내뿜어주는 공합성작용을 하기 때문이다. 잘 가꾸어진 1㏊는 탄산가스 16t을 흡수하고, 12t의 산소를 방출한다. 한 사람이 하루에 0.75kg의 산소를 필요로 함으로 1㏊의 숲은 1년 동안 44명이 숨 쉬 수 있는 산소를 공급해 주

고 있는 셈이다. 다시 말해서 잘 가꾸어진 1㏊는 사람 한 명이 44년 동안 마실 수 있는 산소를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다.

산림이 주는 이러한 혜택을 모든 국민이 누리고 보편적 산림복지 국가를 지향하면서도 나무를 심고 가꾸는 조림과 숲 가꾸기 사업을 산주에게 부담시키는 산림정책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할 문제이다.

산주들의 산림투자 의지를 이끌어 낼 정책으로는 산주가 생산하는 공익적 기능에 대해 정부가 직접 보상해 주는 직불제가 좋을 듯하다.

세정부가 출범하는 만큼 차제에 산주가 부담하는 조립사업과 숲 가꾸기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고 정부의 일자리 창출에 산림이 기여하는 정도를 심도있게 과학해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장〉

켜주기 바란다.

▲노현옥·광주시 북구 운암동

##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mail opinion@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 시 설

## 호남선 KTX 더 이상 ‘저속철’ 안된다

충남권 일부 지역에서 2014년 개통 예정인 호남선 KTX(오송~광주 구간) 서대전역 경유를 요구하고 나서 호남권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서대전역을 경유할 경우 40분 이상 지체되면서 애초 취지와 달리 ‘저속철’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광주시에 따르면 대전시·계룡시·유·해·공군본부 등 5개 기관은 최근 호남고속철 신설 개통 이후에도 호남선 KTX가 서대전역을 경유할 수 있도록 기존 노선 병행 운행을 정부에 건의하였다.

사실, 호남고속철은 1993년 문민정부에서 공식 발표됐지만 이후 경제성 논란에 휩싸이면서 개통 시기가 연기락처럼 늘어져 호남차별의 대표 사례가 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충남권 건의가 또 다시 개통시기를 늦추는 데 이유로 되고 있다.

정부는 지역민들이 피의식에서 벗어나고 고속철 취지도 살피 수 있도록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 광주시와 전남도 역시 대전부의 등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기존 노선을 반드시 지켜내야 할 것이다.

## ‘정치기탁금’ 공무원에게만 손 벌려서야

현재의 정치기탁금 제도는 시민들이 참여해 투명한 돈으로 깨끗한 정치를 구현하자는 취지에서 ‘소액 다수’의 정신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가 모금한 기탁금의 경우 90% 이상을 공무원과 농협 직원 등이 낸 것이어서 시민 참여의 취지가 뇌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각 자치구는 지난해 목표까지 기준에 맞아 2014회원 1인 3000원을 모금한 정부는 2014회원 1인 9532만 원으로, 이 가운데 84.2%인 1억 9532만 원을 광주시와 5개 자치구, 시교육청의 배분율에 따라 각 정당에 지급하는 정부로서, 선거직 기관은 10%(231만 원)도 광주지역 일선 농협 직원들이 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0%(231만 원)도 광주지역 일선 농협 직원들이 퇴행을 불러올 뿐이다.

선관위는 당장 예산부터 중단하고, 시민 중심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 기관장 역시 이를 과감히 물리치고, 몇몇 자세로 행정에 임해야 한다. 공무원과 직원들도 기관장을 보내오자 공무원과 직원들을 동원해 기탁금을 내도록 한 것이다.

## 無 等 鼓

미래가 불안한 이유는 예측하기 어려운 불확실성 때문이다.

스皮로스 마크리다키스는 ‘지하철과 코코넛’이란 책에서 부와 성공을 좌우하는 것은 ‘운’이라고 지적하면서 미래 외교형 사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마크리다키스는 그렇다고 성공을 운에만 맞기라는 얘기는 아니라고 말한다. 운도 연습할 수록 좋아지는 만큼 미래를 예측하는 연습을 수없이 반복하라는 것이다.

현종 비 완료형 덕담은 당장 편에 보낸 편지에도 “새해 맞이에는 네가 괴로이 앓던 병을 다 떨쳐버리니…80세까지 산다고 하니 사람에게 기쁘기는 이 밖에 더한 일이 없으니”와 같이 병이 미니 나았고 80세까지 장수한 것처럼 미래 완료형 덕담이다.

효종 비 인선왕후가 딸 속희공주에게 보내는 편지에도 “새해 맞이에는 네가 괴로이 앓던 병을 다 떨쳐버리니…80세까지 산다고 하니 사람에게 기쁘기는 이 밖에 더한 일이 없으니”와 같이 병이 미니 나았고 80세까지 장수한 것처럼 미래 완료형 덕담이 등장한다.